

한국경제 발전과정속 서울경제의 역할

압축성장해온 서울시가 향후에도 한국경제 선도해야

- 1960년대 초 정부는 빠른 경제성장과 수출증대를 위해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갖춰진 서울에 정치·행정의 중심기능을 집중시켜 강력한 행정력에 의한 효율적 국정운영과 기업과 산업의 육성지원을 하는 방법을 택함.
 - 서울·수도권에 기업본사, 우수한 대학과 고급인력이 집중되고 경제·사회 인프라가 구축된 결과 서울·수도권의 제조업 생산은 타 지역 대비 비교우위를 갖게 되었고 수출주도 성장정책과 고도성장에 크게 기여하였음.
- 세계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서비스화, 첨단산업화 되는 거대도시가 세계 도시로 부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 지식, 정보, 고급인력이 풍부한 서울과 수도권은 적절한 정부 정책이 뒷받침된다면 한국경제의 고부가가치화, 소프트화, 서비스화를 선도할 수 있음.

수도권 경제가 한국경제를 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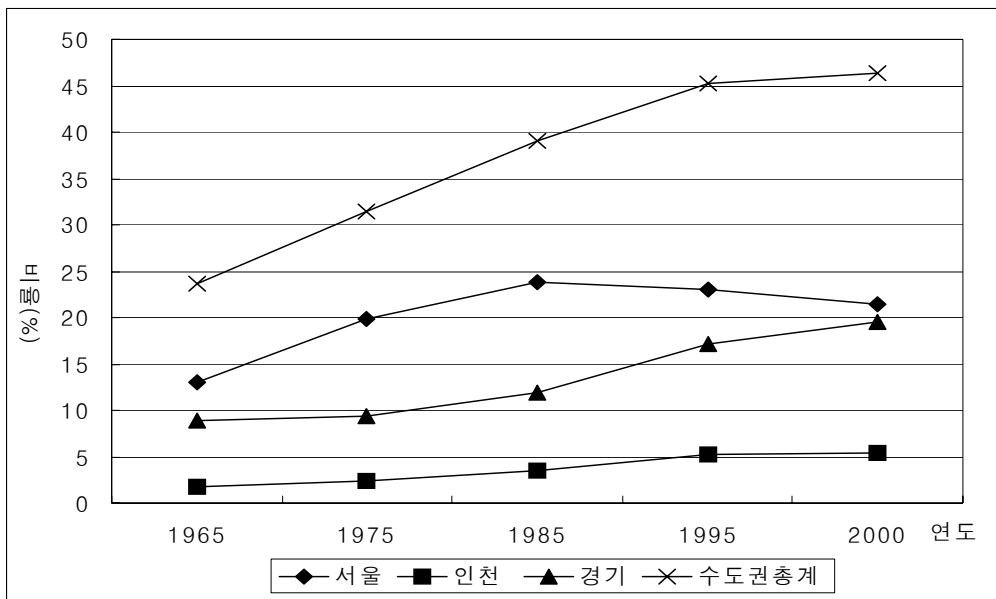
- 지역내총생산(GRDP)의 추이를 보면 수도권 생산의 비중은 1986년에 전국 생산의 41.8%에서 2001년에는 48.2%로 증가하였음. 이는 경기도가 13.0%에서 21.0%로 크게 증가한데 기인함([표 1] 참조).
 - 수도권의 빠른 서비스화는 수도권이 전국의 경제변동과 구조조정을 선도하고 있음을 보여줌. 2001년 서울, 경기도, 인천의 지역별 총생산 대비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83.1%, 34.4%, 49.6% 임.

[표 1] 지역 내 총생산 구성비의 추이 (경상가격 기준, %)

구 분	1986년	2001년
전국	100	100
수도권	41.8	48.2
서울	24.6	22.4
경기	13.0	21.0
인천	4.2	4.9

자료: 통계청, 지역내 총생산과 지출, 1987년, 2002년

- 수도권 인구는 전국 인구의 46%를 차지할 정도로 증가함([그림 1] 참조). 이는 지역내총생산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 인구가 80년대 중반 이후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수도권의 인구 급증은 교육기회와 고용기회가 주요 원인으로 보임.



[그림 1] 전국대비 수도권의 인구비중 변화

- 수도권의 연구인력 분포를 보면 1997년~2001년 기간 중 59%에서 66%로 증가했는데, 서울은 25%에서 30%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2] 참조).

[표 2] 수도권 연구개발 인력의 분포 (단위 : %)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1997				
총계	59.3	24.9	29.7	4.7
연구기관	39.6	21.6	17.1	0.9
대학	43.3	31.3	9.2	2.8
기업체	67.8	20.2	40.3	7.3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2001				
총계	66.4	30.1	25.2	11.1
연구기관	37.5	17.4	17.4	2.7
대학	45.5	33.1	10.3	2.1
기업체	71.8	30	37.4	4.4

자료 : 과학기술부, 한국과학기술기획 평가원, 과학기술연구활동 조사보고서, 1997, 2001.

- 서울과 수도권에는 벤처기업과 정보통신기업이 대부분 집적해 있음. 1998년 전국 벤처기업 중 35%가 서울에 자리를 잡았으며 2000년에는 이 비율이 61%까지 상승하였음. 수도권 전체로 보았을 때는 2000년 87%, 2002년 72%가 집적해 있음([표 3] 참조).

[표 3] 벤처기업 추이

구 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총계
1998	2,042	719	196	451	1,366
(%)	100	35.2	9.6	22.1	66.9
1999	4,934	1,858	338	1,123	3,319
(%)	100	37.7	6.9	22.8	67.3
2000	8,798	5,345	491	1,781	7,617
(%)	100	60.8	5.6	20.2	86.6
2001	11,392	5,345	579	2,425	8,349
(%)	100	46.9	5.1	21.3	73.3
2002	9,570	4,159	460	2,298	6,917
(%)	100	43.5	4.8	24	72.3

출처 : 산업자원부 산업기술정책과 DB 및 중소기업청, 벤처기업현황 조사보고, 각 년도

- 정보통신업 종사자의 경우도 서울은 1997년 35%에서 1999년 33%로 약간 감소추세를 보이거나 인천은 3.7%에서 4%로, 경기도는 24%에서 28%로 증가하여 수도권 전체가 1997년 61%에서 1999년 6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표 4] 참조).

[표 4] 정보통신업 종사자수

구 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총계
1997	607,133	210,014	22,304	143,862	
(%)		34.59	3.67	23.70	61.96
1998	572,259	195,428	21,091	133,006	
(%)		34.15	3.69	23.24	61.08
1999	572,791	191,516	24,172	158,022	
(%)		33.44	4.22	27.59	65.24

자료 : 정보통신산업통계연보, 각 년도.

- [표 5]를 보면 1975년~2002년 기간 동안 특허의 출원은 서울의 비율이 66%에서 43%로 감소하였으나 경기도의 비율이 상승하여 수도권 전체는 2002년 76%선을 유지하고 있음.

[표 5] 특허(출원)

(단위: 개, %)

구 분	전국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 합계
1975	1,326	875	99		974
(%)	100	65.99	7.47		73.46
1985	2,703	1,408	108	512	2,028
(%)	100	52.09	4	18.94	75.03
1995	59,236	28,529	7,062	16,942	52,533
(%)	100	48.16	11.92	28.6	88.68
2002	76,570	32,813	1,850	23,426	58,089
(%)	100	42.85	2.41	30.59	75.85

주. 75년 인천의 수치는 경기도에 포함

참조 : 특허청: 특허청 연보, 각 년도

수도권 개방·개혁·사회 인프라 형성이 한국경제 발전의 핵심과제

- 한국경제를 선도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개방·개혁 및 사회 인프라 형성을 통해 향후 한국경제의 발전을 주도해야 함.
 - 금융시스템과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투명성의 제고, 지배구조의 개선 등 세계화에 적응하는 정책 개선이 필요함.
 - 수도권은 서비스 부문에서 큰 성장과 많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으나 비개방과 지나친 정부규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산업 발전이 정체되고 서비스업 생산성이 선진국의 60%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 그러므로 서비스산업을 개방하여 외국 고급인력 유치를 통해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여야 함.
 -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여 지식·인프라·고급인력과 정보취득이 쉬운 수도권에 입지하려는 해외기업을 유치해야 함.
 - 현행 입지요건이 우수한 서울의 경제특구 배제는 외국인투자를 국내의 타 지역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중국 등 경쟁국에게 상실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울에서도 경제특구가 지정되어야 함.

한국경제의 미래를 향한 서울경제 육성방안

- 서울은 과거 개방, 자유화 정책, 인프라 구축에 의해 타 지역보다 많은 혜택을 보았고 그로 인해 전국경제의 선도가 가능하였음.
- 서울의 기능이 경기도와 인천 등 다른 인접지역으로 이전되고 있으나 생산자서비스인 금융, 보험, 부동산과 사업자서비스업은 국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보여 왔음.
- 정부는 서울경제가 서비스업과 첨단산업을 발전시키고 고용창출을 하도록 서비스업을 개방하고 산업규제를 대폭 해제해야 함.

- 또한 수도권의 교통 혼잡, 대기오염, 높은 부동산 가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 전철망을 조기에 착공하여야 할 것임.

왕연군 .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ykwang@cau.ac.kr